

한국 BL 웹소설 속 ‘후회공’물의 서사구조와 멜랑콜리아 연구

엄채민*

1. 서론
2. 후회공 서사의 구조적 특성
3. 감정적 위계의 전복과 멜랑콜리아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 BL 웹소설에서 목격되는 ‘후회공’물의 서사구조와 ‘후회공’이라는 키워드로 설명되는 공(攻) 인물이 겪는 상실의 서사, 그리고 그에 따른 멜랑콜리아 정동을 다루었다.

BL 웹소설 속에서 ‘후회공’이란 수많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양상과 층위로 존재하나, 일반적으로는 자신을 향한 수(受) 인물의 애정을 모종의 이유로 등한시하거나 외면하다 뒤늦게 수의 존재와 애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하는 공 인물의 유형을 가리킨다. 후회공 서사에서 수는 결국 자신의 애정이 짓밟힘을 느낌으로써 단념하고 공의 결을 떠나게 된다. 이때 공이 느끼는 후회의 감정은 멜랑콜리아(Melancholia)적 징후로 이어지며, 독자(수용자)는 수보다 감정적으로 우위에 있던 공이 처절하게 후회함으로써 열위로 추락하는 모습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본고는 그웬돌린 작가의 〈인연〉, 모스크물 작가의 〈모래성〉, 봄날의북길이 작가의 〈이혼 계약〉을 통해 후회공 서사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서사 내에서 공 인물이 겪는 감정적 위계의 전복을 프로이트의 멜랑콜리아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BL 웹소설 연구의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한편, BL 웹소설의 방대한 하위장르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독자적인 서사 문법을 논증하고 학술적으로 규명하여 웹소설 연구를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고는 이러한 작업이 현대 대중 서사의 역동성을 포착하는 동시에 한국 BL 웹소설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BL 웹소설, 후회공, 서사구조, 모티프, 상실, 멜랑콜리아(Melancholia), 카타르시스)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 BL 웹소설에서 목격되는 ‘후회공’물¹⁾의 서사구조적 특징과 해당 모티프에서 다루어지는 상실에 따른 멜랑콜리아 정동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웹소설은 특정 모티프에 따라 서사구조가 확립²⁾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웹소설 안의 다양한 장르에서 특정 서사 모티프

1) 웹소설의 장에서 쓰이는 ‘~물’은 웹소설의 하위장르를 가리키는 장르 용어이다. 상위 장르인 ‘판타지’나 ‘로맨스’ 등의 개념보다 더 좁은 범위의 대상을 지칭하며, 해당 용어는 어떤 서사가 특정 모티프(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김준현, 「웹소설 장에서 사용되는 장르 연관 개념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74호, 현대소설학회, 2019, 128쪽.

2) 김준현, 『웹소설 작가의 힘』, 한티재, 2019, 169-173쪽.

(Motif)³⁾가 오랜 시간에 걸쳐 활용·재생산됨으로써 세계관과 등장인물의 모험 유형이 유사해졌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서사구조가 확립된 모티프들은 '키워드(keyword)'화 되어 다양한 웹소설 플랫폼에서 해시태그(#)로 제공되며, 이는 독자(수용자)가 웹소설을 선택할 때 참고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이때 독자들이 특정 키워드를 선호하는 경향은 그 특정 모티프에 구축된 서사구조를 즐기려는 욕망으로 설명될 수 있기에 웹소설 작가들은 모티프별로 확립된 서사구조를 일종의 법칙처럼 적극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에, 한국 웹소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모티프별 서사구조의 확립 여부 및 그 양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한국 웹소설에서 목격되는 특정 모티프, 혹은 그 서사구조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⁴⁾이 존재하지만, 인물 유형 모티프 및 그에 따른 서사구조를

3) 서사 모티프(Motif)는 “대중의 경험과 의식을 그대로 서사의 핵(core)로 집약”한 것이다. 이는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서사 안에서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며, 인물에게 행위의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는 작은 의미 단위”가 되기도 한다. 김민규·박정식, 「이야기 최소 단위로서 모티프의 이야기 개발 활용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33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8, 33쪽; 윤혜영, 「서사 모티프의 분류 체계 연구-분신 모티프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0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4, 274쪽.

4) 고경은, 「한국 웹소설의 서사모티프 연구 : 카카오페이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고경은·조혜정, 「한국 웹소설의 서사 모티프 유형 및 'AI 유저 반응' 연구: 카카오페이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13권 4호, 인문사회 21, 2022, 2551-2564쪽; 구자준, 「책방의물과 게임방송물 웹소설의 자기반영성 연구 - 『전지적 독자 시점』과 『납골당의 어린 왕자』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66권, 상허학회, 2022, 375-410쪽; 권경미,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의 신계급주의와 서사 특징 - 책방의물과 회귀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84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109-140쪽; 김정희, 「웹소설의 '회귀' 구조를 통해 본 자기 부정의 극복으로서 '다시 살기'의 서사적 의미 -악녀형 인물을 중심으로-」, 『생사학연구』 제6권,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2025, 85-117쪽; 박수미, 「웹소설 시스템이 서사구조에 미친 영향」, 『인문과학』 제87권,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105-134쪽; 박지희, 「책방의물 웹소설에 드러나는 저자성과 주체 연구-〈문과라도 안 죄송한 이세계로 감〉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의 수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모티프 관련 연구라 할지언정 웹소설의 주요 장르⁵⁾ 중 하나로 꼽히는 BL 장르에서 목격되는 모티프를 고찰한 학술적 논의의 수는 타 장르의 성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로맨스’ 범주에 속하는 로맨스판타지, 현대로맨스, BL 장르는 대개 인물 간의 관계성을 주축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그중에서도 BL 장르는 선행 연구를 통해 관계지향적인 로맨스 서사를 구축한다고 밝혀진 바 있다.⁶⁾ 이러한 장르적 특성은 서사를 주도하는 공(攻)·수(受)⁷⁾ 인물을 세분화하

『한민족어문학』 제109권, 한민족어문학회, 191-224쪽; 박찬효, 「2020년대 현대로맨스 웹소설, ‘불륜 복수물’의 스토리텔링 양상 - 〈멜팅 슬로우〉, 〈완벽한 결혼의 정석〉 그리고 〈내 남편과 결혼해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3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4, 283-318쪽; 서재인, 「한국 웹소설에 나타난 시스템 모티프 분석」, 『대중서사연구』 제31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5, 399-431쪽;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책빙의물’의 특성 연구—로맨스판타지 장르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6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0, 87-120쪽;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0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279-307쪽; 엄재민, 「가이드버스(Guidaverse)의 장르적 전형과 신체적 예측 구조 연구—BL 웹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25권 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26, 121-146쪽; 엄재민, 「한국 웹소설에 나타난 자기 재서사화 과정과 자기 구원 욕망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6; 유인혁, 「한국 웹소설 판타지의 형식적 갱신과 사회적 성찰-책빙의물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6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0, 77-102쪽; 음성원·장웅조, 「웹소설에서의 회귀·환생 모티프 활용 연구 - Vogler의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 『문화콘텐츠연구』 제25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22, 39-72쪽; 이선영, 「웹소설 ‘아이돌물’의 스토리텔링 연구 - 웹소설 『데뷔 못 하면 죽는 병 걸림』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6; 이수민, 「한국 고수위 웹소설의 서사 모티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6; 정은혜, 「한국 웹소설의 아이돌 모티프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57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3, 247-266쪽.

5) 본고는 논의의 편의상 플랫폼의 분류법을 기준으로 로맨스, 로맨스판타지, 판타지, BL과 같은 상위 장르를 ‘주요 장르’로 지칭하고자 한다. 또한 그 하위에서 특정 모티프를 공유함에 따라 집합·분류되는 것을 ‘하위장르’라고 표기할 것이다.

6) 한혜원·정은혜, 「한국 웹 기반 여성소설에 나타나는 서사적 특성 연구」, 『한국문예창작』 제14권 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5, 99쪽.

는 다양한 인물 유형 모티프를 파생시켰는데, 타 장르와 비교하였을 때 더 풍부한 측면이 있다.⁸⁾ 이러한 인물 유형은 장르 내에서 'OO공', 'OO수'의 형태로 표기되곤 한다. 개중, 최근 대중적으로 활발하게 회자되는 '후회공' 모티프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특정 SNS를 중심으로 해당 장르 용어가 밈화되면서 본래의 장르적 맥락을 넘어, 과거의 실책을 자조하는 일상적 수사로까지 확장되어 사용되는 현상은 이를 방증한다.⁹⁾ 이와 같은 장르 용어의 대중적 확산은 후회공 서사가 단순한 장르적 관습에 머물지 않고, '후회'라는 보편적이고 강렬한 정동을 매개로 수용자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해당 모티프가 장르의 경계를 넘어 통용될 수 있는 독자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누구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후회'라는 보편적인 감정은 BL 장르에서 단순히 인물 유형에 그치지 않고,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정동은 인물 간의 관계를 재편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서사 기제로 기능하며, 결과적으로 후회공 서사가 단순한 인물 유형 모티프를 넘어 하나의 독립적이고 견고한 서사 문법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 주목할 지점은 후회공 서사에서 목격되는 후회는 과거의 잘못

7) BL 장르에서 공(攻)·수(受)는 두 남자 주인공의 관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전자는 성에 묘사에서 삽입하는 인물이며, 후자는 삽입 당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8) 실제로 2026. 5. 6. 기준, 웹소설을 키워드별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웹소설 플랫폼 <RIDI(리디)>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로맨스/로판의 경우에는 남자 주인공의 키워드는 32개, 여자 주인공은 31개였다. 한편 BL 장르에서 공은 32개, 수는 37개였다. 판타지 장르의 경우 주인공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10개였다.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인물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모티프)가 6개가량 차이가 나는 현상은 BL 장르의 독자(수용자)들이 인물 유형에 따라 서사를 판별 및 선택하는 경향이 짙기에, 인물 유형이 좀 더 세분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웹소설 플랫폼이 존재함에도 <RIDI(리디)>를 중점으로 살펴본 것은 유일하게 현재 작품을 키워드별로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용이하기 때문이며, 현 웹소설 플랫폼 중 BL 장르 작품의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9) 현 X(구 Twitter)에서 '후회공'을 검색할 시 이러한 현상을 쉬이 목격할 수 있다.

을 뉘우치는 도덕적 반성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대상의 부재 혹은 관계의 탈출이라는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으며 스스로를 파괴해 나가는 멜랑콜리아(Melancholia)적 정동에 가깝다.

정리하자면 후회공 서사는 인물의 단순한 심리 변화를 넘어, 상실된 대상을 자아의 내부에 끌어들임으로써 발생하는 주체의 극단적인 분열과 자아 소멸의 과정을 서사 전면에 내세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L 장르 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는 후회공 모티프의 서사구조적 특징을 규명하되, 그 중심에서 서사를 추진하는 핵심 정동이 공 인물의 멜랑콜리아적 징후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이는 후회공이라는 하위장르의 장르적 관습을 학술적으로 연구함으로써 BL 웹소설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본고는 분석 대상 작품으로 그웬돌린 작가의 〈인연〉, 모스크물 작가의 〈모래성〉, 봄날의복길이 작가의 〈이혼 계약〉을 선정하였다. 이들 작품은 각기 상이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후회공’이라는 공통된 모티프를 서사 기제로 삼고 있다. 특히 이 세 작품은 출간 연도의 차이에도¹⁰⁾ ‘후회공’이라는 키워드 아래 동일하고 일관된 서사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시대와 매체의 변화, 그리고 각기 판이한 키워드라는 변수 속에도 서사구조가 달라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후회공’이라는 인물 유형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서사구조를 내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해당 작품들은 후회공 서사의

10) 그웬돌린 작가의 작품 『인연』은 2018년에 웹소설 플랫폼에서 판매 및 유통이 시작되었지만, 최초 공개는 2013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BL 장르 소설은 웹소설이 등장하기 이전, 주로 비공개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연』 역시 그중 하나이다. 『모래성』은 2019년에 출간되었으며, 『이혼 계약』은 2023년 유료 연재를 시작해 그 이듬해인 2024년에 전자책(e-book)으로 출간되어 판매 및 유통이 시작되었다.

정형화된 서사 문법을 추적하고 그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 BL 웹소설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창작된 후회공 모티프의 서사구조 및 특징을 다루고, 서사구조에서 공 인물이 경험하는 상실 이후의 후회가 멜랑콜리아적 징후로 연결되는 지점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통해 본고가 타 장르보다 연구가 미진한 BL 웹소설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한국 웹소설의 서사구조·문법 연구에 참고 가능한 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후회공 서사의 구조적 특성

후회공 모티프는 그 첫 창작과 활용이 언제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안 향유자들에 의해 공유되어 왔다. 이처럼 보편적인 감정인 '후회'가 그 자체로 '후회공'이라는 구체적인 장르 용어로 정착되기 이전, 이러한 인물 유형은 과거 대중 서사에서 향유되던 '나쁜 남자' 유형 캐릭터와 일정 부분 그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인물의 마음을 몰라주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나쁜 남자”의 소비는 로맨스 서사의 오래된 관습¹¹⁾이다. 특정 모티프가 장시간 반복되며 새로운 서사적 확장을 이끌어 낸다면, 이는 단순한 소재를 넘어 독립적인 서사 문법을 지닌 플롯으로 기능한다.¹²⁾ 특히 이러한 서사는 향유자들에게 익숙한 기대 지

11) 서은영, 「로맨스판타지 웹툰의 부상과 재현 : #서로판, #영애물, #집착남물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연구』 제16권 3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20, 101쪽.

12)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0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284쪽.

평을 형성하여 서사 전개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한다. 이처럼 일련의 스테레오타입을 통해 서사 세계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을 마스터플롯이라 하는데¹³⁾,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웹소설 플랫폼이 제공하는 키워드는 독자들에게 마스터플롯으로서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후회공 키워드 역시 그중의 하나이다.

〈RIDI(리디)〉에서 BL 장르 웹소설을 판매 및 유통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이전으로 추측된다.¹⁴⁾ 주지하였듯이 BL 장르 소설은 공식적인 웹소설 플랫폼에 편입되기 전, 향유자들의 비공개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되고 창작자 개인의 주도하에 소규모 출판이 진행되었으므로 그 역사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회공’이라는 키워드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인물 유형과 서사구조는 그 시기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며, 그를 바탕으로 공고해졌다고 볼 수 있겠다.

〈RIDI(리디)〉의 BL 장르 웹소설 카테고리에서 ‘후회공’으로 검색했을 시, 2026년 5월 6일을 기준으로 3,352편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서비스 중인 작품의 유형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며 판매·유통 중인 전체 작품 수를 대략적으로나마 유추할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총 22,978편에 달한다. 물론 해당 수치는 동일 작품의 연령별 개정판, 연재 및 단행본 형태 등이 중복 집계된 것이기에 일정 부분 허수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나, 그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BL 웹소설에서 약 7분의 1이 ‘후회공’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작품인 셈이다. 이러

13) H.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 우찬제 역, 문학과지성사, 2010, 91-110쪽.

14) 〈RIDI(리디)〉는 매년 연말에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을 선별하여 리디어워즈를 진행하는데(기존에는 리디북스 어워드였으나 2022년 서비스명 변경 이후로 리디어워즈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최초로 리디어워즈를 실시하였던 2016년에 BL 부문 대상을 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x.com/RIDI_twt/status/814642597318623232?s=20. (접속일: 2026.5.6.)

한 결과는 후회공 모티프가 BL 웹소설 내에서 대중적인 키워드임을 알 수 있는 수치다. 그렇기에 후회공 모티프에 대해 서사구조적 특징을 파악한다면 대중문학, 그리고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분석 대상은 서론에서도 언급한 그웬돌린 작가의 〈인연〉, 모스크물 작가의 〈모래성〉, 봄날의복길이 작가의 〈이혼 계약〉이다. 해당 작품들은 웹소설 플랫폼 내에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¹⁵⁾ 앞서 언급하였듯이 웹소설 독자들은 작품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작품을 선택·소비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기에 이러한 성과는 달리 말해, 해당 작품들이 지닌 키워드가 내포한 서사구조 또는 서사 기제를 잘 반영한 결과물임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한 것처럼 출간 시기와 키워드가 각기 다름에도 '후회공'이라는 모티프 아래 일관된 서사구조를 공유하고 있어, 후회공 모티프가 갖는 서사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기에 적당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첫 번째 작품인 〈인연〉은 사촌지간인 '우기련'(공)과 '이신연'(수)의 이야기로, 어릴 적부터 이어졌던 두 사람의 애정을 군신 관계로 표방하는 서사이다. 우기련은 '화 제국'의 황태자로서 고모의 자녀들인 쌍생아 이신연, '이세연'(이신연의 여동생)을 가까이 두고 지낸다. 그 까닭은 실상 이신연을 총애하기 때문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태자비 자리를 노리는 이세연을 총애하는 것으로 위장된다. 그가 아직 제위에 오르지 않아 완전한 권력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신연은 타인은 물론 가족들마저 자신을 백치

15) 〈RIDI(리디)〉는 작품별로 평점 수치와 별점 개수를 제공하고 있다. 평점은 5점 만점이며, 별점 개수는 독자들이 작품을 읽고 평점을 남긴 개수이다. 이 수치는 구매율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모든 구매자가 별점을 남기진 않기에 대략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주의점이 있다. 2026년 5월 6일 기준 『인연』은 평점 4.6점에 별점 7,288개를, 『모래성』은 평점 4.4점에 별점 2,571개를, 『이혼 계약』은 평점 4.8점에 별점 3,530개를 기록하고 있다.

일지도 모른다고 함에도, 자신이 백치가 아니라고 정정하고 위로해 주는 우기련을 사랑하게 된다.

어릴 적부터 품은 이신연의 연정은 성장 후까지 지속된다. 그는 태자비가 되고 싶어 하는 쌍생아 동생 이세연을 위해 자신의 애정을 단념하려고 힘하기로 자명한 ‘서소환지’로 소년 장수로서 오랜 기간 떠나 있지만, 우기련을 향한 애정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던 도중 화 제국의 황제가 병에 걸려 태자의 혼인 시기가 기약 없이 밀리자, 황족임에도 군인과 결혼하여 왕비가 되지 못한 어머니와 달리 황후 또는 왕비가 되겠다는 야망을 지닌 이세연은 우기련과의 혼약을 깨고 주변 왕국 ‘가림국’에 단자를 넣어 왕비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해당 소식을 들은 이신연은 동생 대신 용서를 빌기 위해 우기련을 찾아가지만, 그날 그에게 강간당하고 이후로도 연동 취급을 받게 된다.

우기련이 자신을 사랑해서 안는 것이 아니라 이세연 대신 자신을 안는 것이라 생각한 이신연은 심적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아예 제국 바깥으로 떠나고자 하지만, 그 시도는 황제가 붕어하고 그 자리를 물려받은 우기련에 의해 저지된다. 장례 동안 우기련은 자신이 황제에 즉위하기 전까지 자신을 노리는 다른 형제들, 그리고 전 황후에게서 이신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거처에 감금시켜두고 약으로 계속해서 재웠으나, 이신연이 스스로 할복을 시도하자 이신연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그를 놓아준다. 그러나 이후 자신을 향한 우기련의 사랑을 깨달은 이신연은 결국 우기련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고, 우기련은 황후, 황비, 그리고 귀비도 없이 이신연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두 번째 작품인 <모래성>은 대학생 ‘서지우’(공)과 ‘김은성’(수)을 중심으로, 영원토록 자신과 함께할 운명적인 사랑 상대를 기다리고 있던 서지우 곁에 김은성이 나타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

다. 서지우의 외모만을 선망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에게서 결핍을 포착한 김은성은 그에 깊은 매력을 느낀다. 자녀들은 뒷전으로 두고 둘만의 사랑을 중요시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서지우는 그들이 강조하던 '운명적인 사랑'을 기다리며 살던 도중, 김은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표하며 다가오자 그 역시 자신의 외모를 보고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지레짐작하지만, 서서히 김은성이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애정에 감화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짓을 해도 김은성이 사랑해 줄 수 있을지 시험하기 위해 그를 폭언 등으로 홀대하고, 그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애정 행각을 벌이는 등 모욕을 준다.

그러한 모욕에 지친 김은성이 애정을 단념하고 그의 곁을 떠나려 하자, 서지우는 뒤늦게 후회하며 김은성에게 자신을 받아달라 애원하고 용서를 빈다. 그리고 자신에게 김은성이 매력을 느낀 지점, 즉 무엇인가 결핍된 모습을 내세워 김은성의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한다. 그러한 서지우의 모습에 김은성이 다시 그를 용서하고 영원한 사랑을 주리라고 약속함으로써 행복한 결말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세 번째 작품인 〈이혼 계약〉은 오메가버스(Omegaverse)¹⁶⁾ 세계관 작품으로, 우성 알파 '서도현'(공)과 열성 오메가 '고이결'(수)가 조부 간의 약속으로 인해 부부로 지내는 이야기다. 'SJ 그룹'의 후계자이자 전무 이사인 서도현은 고이결과의 결혼 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 자신의 허락 없이는 임신도, 출산도 불가능하다는 조약이 포함되는 등 불리하기만 한 조건이 었지만 친척에 의해 학대받다시피 살고 있었던 고이결은 그 계약을 수락

16) 오메가버스(Omegaverse)는 인류를 남녀와 같은 성별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알파, 베타, 오메가라는 형질로 분류한다. 오메가는 성별과 관계없이 임신이 가능한 몸으로 규정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분류법에 더해 '우성', '열성'이라는 성질을 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성은 같은 형질이더라도 더 우세한 번식력, 신체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며 열성은 그 반대이다.

하고 서도현과의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결혼 생활을 지속하며 고이결은 자신에게 이따금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서도현을 좋아하게 된다. 하지만 부부라는 다른 이름의 계약 아래 철저히 피임하며 서로의 러트·히트사이클¹⁷⁾을 책임지던 둘의 관계는 서도현의 러트 기간 동안 피임에 실패하게 되며 변화를 맞이한다.

고이결은 자신이 임신 가능성이 낮은 열성 오메가임에도 서도현이 우성 알파인 탓에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제일 먼저 서도현과 작성한 계약서를 검토한다. 자신의 아이임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형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입양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서도현의 결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서도현이 숨어 지내던 고이결을 결국 찾아냄에 따라 둘은 다시 부부 생활을 지속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고이결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고이결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알파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오해한다. 고이결이 서도현의 아이라고 사실대로 말함에도 서도현은 믿지 않고, 그로 인해 고이결은 임신 기간 내내 서도현에게 강간당하여 끝내 아이를 조산하고 만다.

서도현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 친자 확인 검사를 통해 고이결이 자신에게 주장했던 것이 모두 사실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후회하게 된다. 고이결은 서도현과의 폭언과 홀대로 몸과 정신이 망가져 서도현을 두려워하게

17) 오메가버스 작품에 등장하는 러트사이클과 히트사이클은 일종의 발정기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알파, 후자는 오메가의 발정기를 가리킨다. 간단하게 러트, 히트와 같이 그 앞 명칭만으로 칭해지기도 한다. 해당 기간이 되면 알파, 오메가들은 성욕과 번식욕이 어떤 욕구보다 우선하게 되어 자신과 다른 형질의 페로몬을 갈구하게 되며, 여러 작품에서 활용되는 모티프인 만큼 다양한 양상으로 묘사되지만 대부분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서술되고, 그 때문에 주인공들은 그 기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되고, 서도현은 고이결을 향한 자신의 애정을 뒤늦게 인정하고 그를 놔주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몸과 정신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변 인물로 인해 여러 위험을 맞닥뜨리게 된 고이결이 서도현에게 의지하게 되고, 결국 서도현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세 작품은 시대적 배경이나 구체적인 사건의 양상은 각기 다르지만, '후회공'이라는 장르적 기표 아래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서사 흐름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후회공 서사가 개별 작가의 창작적 변용을 넘어, 독자와의 약속된 규칙으로서 공고한 서사 문법을 확립했음을 의미한다. 작품의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을 분절하여 재구성해 보면, 후회공물 특유의 역동적인 감정 전이와 위계 전복을 가능케 하는 단계별 구조가 도출된다. 이에 본고는 분석 대상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서사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조화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단계	서사적 국면	주요 서사 내용	감정적 위계 및 관계 양상
1단계	비대칭적인 애정의 형성	수가 공을 향한 일방적 애정을 먼저 형성함	공(우위) : 수(열위) 비대칭적 애정 관계
2단계	결핍의 심화와 가해	공이 수의 마음을 인지하면서도 무시·외면하거나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입힘	공(우위) : 수 (열위) 공의 감정적 오만과 수의 인내
3단계	관계의 단절 및 단념	수가 짓밟힌 애정을 단념하고 물리적·심리적으로 공의 결을 떠나기로 결심함	공(우위 상실) : 수(자립) 수의 주체적 이탈과 애정의 단념
4단계	부재를 통한 각성과 후회	수의 부재(상실) 이후 예야 공이 수의 가치를	공(열위) : 수 (우위) 공의 정서적 추락과 멜랑

		깨닫고 뒤늦은 후회와 고통을 겪음	콜리아적 징후
5단계	사후적 승인과 행복한 결말	공의 진심 어린 고백과 구애를 수가 수용함으로써 관계의 회복과 결합이 이루어짐	공 : 수 용서를 통한 위계의 해소 및 행복한 결말

〈표 1〉 후회공물의 서사구조와 공·수 관계 양상 변화

서사 전개 과정에 따른 후회공 모티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비대칭적인 애정의 형성**: 해당 국면은 인물 간의 관계가 설정되는 단계로, 수 인물이 공 인물을 향한 애정을 먼저 형성하며 시작된다. 후회공물에서 수는 공에게 정서적으로 귀속된 상태로 등장하거나, 공의 사소한 호의를 바탕으로 애정을 갖게 돼 자발적으로 감정적 열위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 즉, 이 단계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감정의 비대칭성이다. 물론 한 편으로는 공이 수에게 애정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의 애정은 수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오로지 독백이나 속마음의 묘사를 통해서만 그의 애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출발은 향후 공이 행사하게 될 정서적 폭력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서사 후반부에서 일어날 위계 전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② **관계적 결핍과 정서적 가해**: 이 서사적 국면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형성된 비대칭적 애정 관계를 바탕으로 공의 오만과 수의 인내가 충돌한다. 공은 수의 애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이유 때문에 이를 자신의 권력 아래에 두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수에게 모델감을 안겨준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를 향한 공의 고압적인 태도나 물리적·심리적 가해는 수의 내면적·감정적 결핍을 심화시킨다. 이때의 물리적·심리적 가해는 폭언, 그리고 강간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는 한다.¹⁸⁾ 이 국면

에서 공은 감정적으로 우위를 점하며 주도권을 행사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수의 애정을 소진하게 함으로써 관계의 파국을 예고하는 단계가 되기도 한다.

③ **관계의 단절 및 단념**: 해당 국면은 후회공 서사의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수가 짓밟힌 애정을 단념하고 공과의 관계로부터 이탈을 선언하는 과정이 전개된다. 이 지점에서 수의 이탈은 단순한 물리적 도주를 넘어 공에게 스스로 부여했던 '감정적 권력'을 회수하는 주체적 행위로 읽을 수 있다. 수는 더 이상 공의 가해에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함으로써 기존의 위계 구조를 무너뜨린다. 이러한 수의 변화는 공에게 있어 견고했던 세계의 균열로 다가오며, 이후 전개될 공의 정서적 붕괴를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④ **부재를 통한 각성과 후회**: 이 서사적 국면은 수의 부재라는 상실을 기점으로, 견고하던 감정적 위계가 완전히 전복되는 핵심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국면에서 공은 수의 관계 이탈을 통해 자신이 누리던 정서적 주도권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상실한 대상의 가치를 사후적으로 재인식하며 급격한 심리적 붕괴를 경험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절대적 우위에 서서 감정적 권력을 휘두르던 공이 대상(수) 없이는 자아를 유지할 수 없는 정서적 열위의 위치로 전락한다는 사실이다. 공의 이러한 처절한 추락은 후회공 서사가 지닌 장르적 역동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점이다. 다만, 공이 겪는 고통의 심층적인 성격과 그것이 멜랑콜리아적 정동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

18) “BL 우주에서 강간이란 열정에서 오는 폭력이 아니라 과도한 애정의 발로라는 독자의—황당무계한—전제가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공’의 강간 행위 자체는 ‘수’와 경우에 따라 주위 친구들에게도 비난은 받지만, (...) 그 동기가 애정이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는 ‘수’에게 닿는다는 장치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BL 장르에서 ‘강간’이 서사적 장치로 쓰이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 미조구치 아키코, 『BL진화론』, 김효진 역, 길찾기, 2018, 83쪽.

는 구체적인 기제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⑤ **사후적 승인과 행복한 결말**: 마지막 국면은 공의 자기 파괴적인 참회와 수의 용서를 통해 정서적 비대칭성이 해소되는 단계이다. 공은 과거의 과오를 보상하기 위해 이전과는 상반된 헌신적 태도를 취하며, 수는 이러한 공의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관계의 재결합에 이른다. 이 국면에서 서사 초반부에 설정되었던 감정적 우열 관계는 수평적 평등으로 해소되거나, 혹은 수의 관용에 의해 관계적 복원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띤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복한 결말은 독자에게 심리적 안정감·만족감을 선사하며 서사를 완결 짓는다.

이처럼 후회공 서사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우열 관계의 역전은 오해의 해소나 인물의 성격 개조를 통해 관계의 안정으로 나아가던 전통적인 로맨스 서사의 서사 문법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로맨스에서의 권력 이동이 일시적이거나 감정적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이루어진다면, BL 웹소설의 후회공 서사는 절대 강자로 군림하였던 ‘공’이라는 주체가 감정적 부채로 인해 스스로를 밑바닥까지 추락시키는 파멸적인 과정을 세세히 보여준다. 즉,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공 인물이 지니고 있던 권력의 붕괴에서 장르적 쾌감이 발생한다는 점이 후회공 서사가 가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감정적 위계의 전복과 멜랑콜리아

BL 장르 웹소설 내에서 후회공이라는 하위장르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인물 간의 감정적 불균형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카타르시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자는 오만하던 권력자가 정서

적으로 몰락하여 고통받는 양상을 목격하며 심리적 보상감과 쾌락을 동시에 경험한다. 특히 BL 장르에서는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공’과 ‘수’ 양쪽이 독자의 대리인이기 때문에”¹⁹⁾ 이러한 공의 추락은 수에게 이입해 있던 독자에게는 징벌적 쾌감을, 공에게 투사되어 있던 독자에게는 자기 파괴적 쾌락과 참회를 동시에 선사한다.

다시 말해, 감정적 권력의 정점에 있던 공이 정서적 열위로 전락하는 과정이 독자가 서사 초반부터 축적해 온 감정적 부채를 일시에 탕감받는 서사적 장치로 작용하며 강력한 카타르시스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르적 재미의 중심에는 공의 내면을 잠식하는 멜랑콜리아적 정동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후회공 서사 내에서 멜랑콜리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발현되는지 분석함으로써, 감정적 우위에서 열위로의 추락이 카타르시스로 변환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멜랑콜리아는 우울증을 뜻하는 말로 일반적인 슬픔과 다르다. 슬픔은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멜랑콜리아라는 정동은 그렇지 않다.²⁰⁾ 슬픔은 보통 상실에 대한 반응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 같은 종류의 상실감이 슬픔이 아닌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곤 한다.²¹⁾ 이때의 상실은 대상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²²⁾

즉, 후회공 서사에서 후회공이 겪는 정동의 상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실을 수용하고 극복해 나가는 통상적인 의미의 ‘후회’나 ‘애도(Mourning)’의 범주로는 해명되지 않는다. 후회공의 후회는 상실한 대상

19) 미조구치 아키코, 앞의 책, 83쪽.

20)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역, 「슬픔과 우울증」, 홍지웅·홍예빈 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20, 243쪽.

21) 위의 책, 244쪽.

22) 위의 책, 247쪽.

(수)의 부재를 인정하지 못한 채, 그 대상을 자신의 자아 내부로 끌어들이 스스로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파괴해 나가는 멜랑콜리아적 징후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본고가 해당 이론으로써 후회공 서사에서 목격되는 감정적 위계의 전복을 포착하려는 이유도 이 지점에 있다. 서사의 핵심, 즉 공과 수 간의 감정적 위계가 전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르적 카타르시스가 공이라는 주체의 분열, 자아 소멸과 같은 멜랑콜리아적 징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가뒤통을 때? 강제로 범했을 때? 이세연을 핑계 대며 안았을 때? 잘못될 수 있는 곳은 많았다. 그러나 그는 아이가 자신을 사모하고 있으니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 이기적인 생각이었다. 아이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나중에는 모두 보상해줄 터이니 조금만 더.

그러는 사이 그는 아이를 잃었다. 아이는 허무하게 날아가버렸었다.

이제 더는 도박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이가 원하는 일만 해줄 것이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영원히 아이를 안게 되지 못하더라도.....²³⁾

조금씩 일이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따뜻한 열로 가득했던 김은성의 눈이 조금씩 그 온도를 잃어 갔다. 불안했다. 불안하다는 말 말고는 내 감정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애정은 조금씩, 눈에 띄게 줄어 갔다. (...)

김은성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무릎을 꿇고 발이라도 핥을 수 있다. 저 아래로 내려가 이제 내가 그를 신처럼 모시면 되니까. 그저 다시 나를 좋아

23) 그웬돌린, 『외전, 작약芍藥』, 『인연』 5권, 요미북스, 2018.

본고에서 분석한 작품들은 전자책(e-book)의 보기 설정 변수를 감안하여 최초 인용 이후로는 권수·챕터로 인용 위치를 표기하도록 한다.

해 줬으면 했고 무한하게까지 느껴지던 그 애정을 흠뻑 젖을 만큼 퍼부어 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리고 영원히 그 속에 있을 수 있기를.²⁴⁾

그날이다. 고이결에게서 절대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던 그날. 냉장고를 뒤지는 그에게 남들 하는 건 다 해 보려는 거라며 빈정댔던 그 밤, 눈물이 차오르고 일그러지는 얼굴을 보며 적당히 먹고 들어가라고 했던 그 날. 그 말에 고이결은 먹고 싶은 걸 참고, 짓고 싶었던 태명마저 짓지 못한 채 임신한 내내 아기를 부르지 못했다. 태교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할 것도 없는 집에서 낮엔 내내 잠들어 있었고 밤엔 짧게 깨어 배우자에게 유린당한 채 정신을 잃기 일쑤였다.

차라리 고이결이 모든 기억을 잃었으면.

서도현은 과거에 머문 고이결의 기억을 확인할 때마다 절망스러웠다. 회복이 되긴 할까. 상처가 흐려지긴 할까.²⁵⁾

전술하였듯 후회공 서사는 공들이 모종의 이유로 수들의 애정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전개로 나아간다. 또한 다음 서사적 국면에서 수를 상실한 뒤에야 자신의 애정을 인정하고, 수를 떠나게 한 자신의 과오를 처절하게 후회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인연〉의 우기련, 〈모래성〉의 서지우, 그리고 〈이혼 계약〉의 서도현 역시 모두 자신을 애정하던 대상을 자신의 오만으로 인해 상실한 자들이다. 세 인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우기련은 이신연을 향한 자신의 애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태자라는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모래성〉의 서지우는 김은성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랑해 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시험하느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혼 계약〉의 서도현은 고이결이 자신에게서 물리

24) 모스크물, 「외전 2. 서지우」, 『모래성』 2권, 페이즈, 2019.

25) 봄날의복걸이, 「Chapter III」, 『이혼 계약』 3권, 비온드, 2024.

적·심리적으로 완전히 떠난 뒤에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싹튼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후회공이 서사에서 수의 마음을 외면·무시하는 이유는 제각기 다양하지만, 그 결말이 공의 후회로 이어진다는 점만은 동일하다.

이러한 세 인물의 사례는 멜랑콜리아의 핵심 기제인 대상의 상실이 자아의 상실로 전이되는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연〉의 우기련이 끊임없이 자책하는 지점, 〈모래성〉의 서지우가 김은성을 신처럼 모실 수 있다고 결연한 태도를 보이는 부분, 그리고 〈이혼 계약〉의 서도현이 과거 자신의 가해 흔적을 돌이켜보며 절망하는 모습은 멜랑콜리아의 전형적인 특징인 자기 비난·파괴를 드러낸다.²⁶⁾ 본래 멜랑콜리아 환자가 자신을 비하할 때 그 비난의 화살은 원래 그가 사랑했던 대상(상실된 대상)을 향한 것이지만²⁷⁾, 후회공 서사에서는 역설적으로 상대를 향했던 과거의 오만과 폭력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공의 자아를 난도질한다. 이는 공이 내재화한 대상(수)과 자아가 내부에서 충돌하며 주체적 분열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 과정을 통해 공은 감정적 우위에서 비참한 열위의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

결신들린 시선이였다. 그는 신연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어디 한 군데 놓치지 않겠다는 것처럼 절박했다. 그러나 신연은 고개를 저었다. 무섭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었다. 시선을 받는 것조차 거절하는 신연을 보며 황제는 이를 악물었다.²⁸⁾

26) “우울증의 경우는 바로 자아가 빈곤해지는 것이다. 우울증 환자가 우리에게 내보이는 자아는 쓸모없고, 무능력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아이다. 그는 스스로를 비난하고, 스스로에게 욕설을 퍼붓고, 스스로가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 처벌받기를 기대한다. (...) 그는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 비난을 과거로 확대시키기만 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앞의 책, 247-248쪽.

27) 위의 책, 251쪽.

“.....넌 뭘 어찌고 싶은 건데.”

지우는 입술을 짧게 깨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다시 나 좋아해 주는 거.....” (…)

“근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

“그렇잖아. 난 너랑 뭐 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 그래야 하나고.”²⁹⁾

“지금, 호, 내 심정이 어떤지 알아요?”

“.....”

“당신 눈앞에서 죽고 싶어. 그럼 당신은 그런 내 모습 잊지 못할 텐데. 적어도! 떠올릴 때마다 나한테 미안하긴 할 텐데. 내가 당신 머릿속이든, 마음 한구석이든 죄책감으로 남을 텐데...!” (…)

“그런데... 그런데 죽지도 못해. 죽으면... 당신이랑 이혼 못 하잖아.”

“.....”

“그러니까... 당신 마음 편해지자고 사과하지 마.”

결국 고개를 떨어트린 고이결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중얼거렸다. 서도 현은 대화를 거부하는 고이결에게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³⁰⁾

또한 후회공 서사에서는 공이 수에게 좀 더 이르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돌려주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과정에서, 수에게 천대받는 공들의 모습이 그려지고는 한다. 이때 공들은 자신에 의해서 수가 느껴야만 했던 굴욕을 느끼게 된다. 굴욕에는 천하게 여겨졌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³¹⁾ 이러한 맥락에서 후회공이 겪는 굴욕은 단순한 감정적 상처를 넘어, 과거 자신이 휘둘렀던 권력에 대한 정서적 인과응보의 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다.

28) 그웬돌린, 「침전沈澱」, 앞의 책 4권.

29) 모스크물, 「8장」, 앞의 책 2권.

30) 봄날의복길이, 「Chapter II(2)」, 앞의 책 3권.

31) 웨인 케스텐바움, 『굴욕』, 김정아 역, 문학과지성사, 2026, 7쪽.

서사 초반 공은 수를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대상 혹은 통제 가능한 상수로 취급하며 그의 인격적 가치를 폄하해왔다. 그러나 관계의 주도권이 수에게 넘어간 시점에서 공이 직면하는 수의 냉대와 거절은, 과거 자신이 수에게 가했던 천대를 거울처럼 비추며 공의 사회적·정서적 위상을 밑바닥으로 추락시킨다. 〈인연〉에서 시선조차 거부당하는 우기련의 절망이나, 〈모래성〉에서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라는 질문 앞에 유구무언이 되는 서지우의 모습은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주체가 타자의 승인 없는 존재론적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굴욕의 실체이다. 또한 〈이혼 계약〉에서 피해자인 고이결이 사죄 행위 자체를 가해자의 안위를 위한 이기적 욕망으로 규정하며 차단할 때, 서도현은 용서를 구할 자격마저 상실한 채 굴욕을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말해, 굴욕이라는 감정이 기본적으로 뒤집힘과 관계된다는 점³²⁾에서 이러한 과정은 후회공에게 필수 덕목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너를 빼앗겨야 한다는 사실이 무서워서 참을 수가 없다. 너를 조금만 덜 사랑했더라면. 너에 대해 몰랐더라면. 네 눈물도 아픔도 알지 못하였더라면. 나는 너를 어떻게든 했을 텐데, 나는 너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너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 너는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데도 나는 너를 해칠 수 없고, 너를 진정 원하는데도 가질 수 없다.”³³⁾

소리 하나 없이 눈물은 그렇게 계속 흘러내렸다. 마른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듯한 건조 하면서도 축축한 모습이다. (...)

“네 마음을 어떻게 돌리지?”

32) “굴욕이라는 혼란스러운 체제는 뒤집힘과 관계한다. 꼭대기가 뒤집혀 밑바닥이 되고, 상층이 뒤집혀 하층이 되고, 영광이 뒤집혀 수모가 되고, 안정이 뒤집혀 불안정이 된다.” 웨인 케스텐바움, 앞의 책, 16쪽.

33) 그웬돌린, 「배아胚芽」, 앞의 책 4권.

“.....”

“여기서 더 가망 없다면.....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³⁴⁾

“네 말대로 우리 관계를 망치고 나서야 알았어. 전부 내 잘못이라는 걸.”

(...)

“내가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해 용서를 빌고 싶었는데, 입장을 바꿔 내가 너였다면...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염치가 없어서 사과할 수 없었어. 용서마저 너한테 강요하는 게 될 것 같아서.”³⁵⁾

굴욕적인 경험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물들의 고백은 감정적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주체가 타자의 고통을 감각함과 동시에 어떻게 스스로의 권위를 해체하고 무력화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무엇보다 〈인연〉의 우기련이 내뱉는 “너는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데도 나는 너를 해치울 수 없다”라는 말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이신연을 영영 잃을 뻔한 경험이 주체의 지배력을 박탈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후회의 국면에 진입한 공은 더 이상 상대를 도구화하거나 억압할 수 없는 불능 상태에 빠진다. 수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게 된 공은 ‘가해자였던 과거의 나’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현재의 나’로 분열되면서 행동의 통제력을 상실한다. 타자의 고통을 내면화한 주체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관철할 동력을 상실한 채, 오직 타자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른다.

또한 〈모래성〉에서 서지우가 던지는 “네 마음을 어떻게 돌리지?”라는 질문은 정서적 주도권의 완전한 상실을 드러낸다. 과거 자신의 의지대로 관계의 방향을 설정했던 주체가 이제는 수의 완고한 침묵 앞에서 아무런

34) 모스크물, 「9장」, 앞의 책 2권.

35) 봄날의복길이, 「Chapter V」, 앞의 책 5권.

방책을 찾지 못하는 유약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이는 한때 정서적으로 절대 우위에 섰던 주체가 타자의 자비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절대적 을로 전락했음을 실감하게 한다.

이러한 자아의 상실은 〈이혼 계약〉의 서도현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과조차 강요가 될까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염치없는 자”로 규정한다. 후회공 서사에서 주체, 즉 공은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박탈당할 만큼 그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과거에 행했던 오만한 폭력이 공에게 돌아올 때, 공은 비로소 상대를 완전히 상실했음을 느끼고 스스로를 비천한 열위의 위치로 추락시킨다.

황제가 이신연을 간택한 게 아니다.

이신연이 황제를 선택한 것이다. 간택당한 쪽은 황제였다. 간택되어 희열에 떠는 쪽도 황제였다.³⁶⁾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결핍을 끌어안고 산다. 서지우의 결핍은 김은성 그 자체이다. 그는 끝없이 욕심내고 김은성의 애정을 갈구한다. 그건 마찬가지로 욕심쟁이인 연인의 감춰진 욕망을 끌어낸다. 우리는 서로 절대 놓지 않을 것이고, 놓아줄 생각도 없다. 완벽하게 맞는 퍼즐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³⁷⁾

“아마 우리는… 오랫동안 힘들 거고, 나는 자주 마음 아파하겠죠. 서도현 씨는 줄곧 후회할 거고. 그런데 나는… 그런 우리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속상해하면 당신은 예전과 달리 금방 눈치챌 테니까. 서도현 씨한테 내 기분을 털어놓으면 나는… 짧게 앓고 지나가는 감기처럼 다시 괜찮아질 거예요.”³⁸⁾

36) 그웬돌린, 「외전, 작약芍藥」, 앞의 책 5권.

37) 모스크물, 「외전 3. 연인의 모든 것」, 앞의 책 2권.

결국 공의 멜랑콜리아적 추락이 극단에 달해 자아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과정을 끝내고 인물을 심연에서 건져 올리는 유일한 인물은 다름 아닌 수다. 〈인연〉에서 제국의 황제인 우기련이 상대를 택하는 주체가 아닌, 상대인 이신연에게 '간택당하는' 객체로 묘사되는 지점은 후회공 서사의 권력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모래성〉에서 서지우가 자신의 근원적 결핍을 오직 김은성을 통해서만 메울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의 애정을 갈구하는 행위는 자아의 완성을 위한 주도권이 전적으로 수에게 이전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공이 누리던 기존의 위압적 지배력이 상실된 자리에 수의 애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공의 결여된 자아가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이혼 계약〉의 서도현 역시 예전처럼 자신이 고이결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지, 고이결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지만, 고이결이 도리어 용기를 내게 해주는 장면은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지점을 시사한다.

공은 수의 용서와 선택 없이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멜랑콜리아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수는 단순한 피해자를 넘어 공의 생사여탈권을 쥐 실질적인 주권자로 등극한다. 공을 추락시킨 동력이 수의 고통과 상실이었듯, 그를 다시 끌어올려 대등한 관계에 세우는 것도 또한 수의 자비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사적 해결은 후회공이라는 마스터플롯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기약된 정서적 만족감을 선사한다. 웹소설의 키워드를 통해 서사의 전개 방향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공의 몰락과 수의 권력 획득은 예정된 기댓값의 충족이자 장르적 쾌락의 핵심이다. 후회공 서사의 결말

38) 봄날의복길이, 「Chapter VIII」, 앞의 책 6권.

부분에서 나타나는 수의 마음에 따라 관계의 온도가 결정되리라는 사실, 그리고 공이 수의 눈치를 살피며 후회하기를 멈추지 않는 상태가 묘사되는 지점은 독자가 기대했던 감정적 보상 체계로 완결됨을 시사한다. 결국 독자는 수의 자비와 용서를 통해 공이 구원받는 광경을 목격함으로써 서사 내내 억눌렸던 위계적 불균형이 해소되는 카타르시스의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물들의 자기 파괴와 정서적 몰락은 독자로 하여금 강력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핵심적인 서사 기제가 된다. 서사 초반부터 축적되어 온 정서적 긴장감은 감정적 권력을 휘두르던 공이 수의 고통과 상실에 굴복하여 스스로의 존재를 지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해소된다. 독자는 공의 거대했던 자아가 멜랑콜리아의 심연으로 추락하여 수의 용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는 순간을 목격하며, 비대칭적이었던 감정의 회복과 함께 고도의 장르적 쾌락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후회공 서사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정동인 후회가 어떻게 감정적 위계의 전복이라는 장르적 쾌락으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결국,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후회공 서사의 미학은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라는 고통을 서사 전개의 동력으로 치환하는 멜랑콜리아적 역설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공이 겪는 자아의 빈곤화는 그를 비천한 열위의 위치로 추락시키지만, 역설적으로 그 추락의 끝에서만 수의 진정한 가치와 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자각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수는 공을 파괴할 수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거듭나며 서사의 완결권을 획득한다. 멜랑콜리아라는 어두운 정동이 카타르시스라는 환희로 변모하는 이 극적인 전환은 후회공 서사가 지닌 가장 강력한 서사적 매력이다. 본 장의 논의를 통해 밝혀낸 감정적 위계의 전복

과 정동의 변이 과정은 후회공물이 현대 대중 서사로서 점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위상과 그 서사적 필연성을 규명하는 근거가 되리라 생각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 BL 웹소설에 나타난 후회공 모티프의 서사구조적 특징과 서사 전개에서 목격되는 공 인물의 감정적 위계의 전복, 그리고 그 기제가 되는 멜랑콜리아 정동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후회공 서사는 다섯 단계의 서사 전개를 보인다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① 비대칭적인 애정의 형성, ② 관계적 결핍과 정서적 가해, ③ 관계의 단절 및 단념, ④ 부재를 통한 각성과 후회, ⑤ 사후적 승인과 행복한 결말이 바로 그것이다. 이중 모티프의 이름이 되는 '후회'라는 감정이 서사의 중심이 되는 국면은 4단계, '부재를 통한 각성과 후회'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은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을 겪고 멜랑콜리아적 징후를 보이게 된다. 자신을 향한 애정을 단념하고 떠나려는 수를 붙잡으려 시도하며, 그 과정에서 굴욕이라는 감정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또한 이때 공은 자신이 수에게 저질렀던 과오를 계속해서 곱씹음으로써 스스로를 비난하는 멜랑콜리아적 징후를 보이며, 이러한 정동은 공의 정서적 주도권의 상실로 이어져 기존에 정립되었던 감정적 위계 관계를 완전히 뒤집는다. 이와 같은 서사 전개에서 독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데, 이는 후회공이라는 모티프가 지닌 장르적 쾌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후회공 서사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동인 후회가 멜랑콜리아적 징후와 맞닿음으로써 감정적 위계의 전복이라는 장르적 쾌락으로 이어지는 장르 문법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후회공 모티프를 학술적 분석의 장으로 끌어올려, 그것이 지닌 서사구조적 특징과 핵심적인 서사 기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프로이트의 멜랑콜리아 이론을 후회공의 심리 기제와 모티프의 원형인 '후회'라는 정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사 전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에 접목하여, 공 인물의 정서적 추락이 독자에게 단순한 복수극 이상의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주는 장치임을 규명한 것은 BL 장르 연구의 지평을 확장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급변하는 웹소설 시장 속에서 정형화된 플롯들이 단순한 반복을 넘어, 어떠한 서사적 생명력과 미학적 가치를 획득해 나가는지 이해하는 데 작은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그웬돌린, 『인연』, 요미북스, 2018.
모스크물, 『모래성』, 페이스, 2019.
봄날의복길이, 『이혼 계약』, 비온드, 2024.

2. 논문과 단행본

- 고경은, 「한국 웹소설의 서사모티프 연구 : 카카오페이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고경은·조혜정, 「한국 웹소설의 서사 모티프 유형 및 'AI 유저 반응' 연구: 카카오페이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13권 4호, 인문사회 21, 2022, 2551-2564쪽.
- 구자준, 「책빙의물과 게임방송물 웹소설의 자기반영성 연구 - 『전지적 독자 시점』과 『납골당의 어린 왕자』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66권, 상허학회, 2022, 375-410쪽.
- 권경미,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의 신계급주의와 서사 특징 -책빙의물과 회귀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84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109-140쪽.
- 김민규·박정식, 「이야기 최소 단위로서 모티프의 이야기 개발 활용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33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8, 23-45쪽.
- 김정희, 「웹소설의 '회귀' 구조를 통해 본 자기 부정의 극복으로서 '다시 살기'의 서사적 의미 -악녀형 인물을 중심으로-」, 『생사학연구』 제6권,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원, 2025, 85-117쪽.
- 김준현, 『웹소설 작가의 힘』, 한티재, 2019.
- _____, 「웹소설 장에서 사용되는 장르 연관 개념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74호, 현대소설학회, 2019, 107-137쪽.
- 박수미, 「웹소설 시스템이 서사구조에 미친 영향」, 『인문과학』 제87권,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105-134쪽.
- 박지희, 「책빙의물 웹소설에 드러나는 저자성과 주체 연구-〈문과라도 안 죄송한 이세계

- 로 감>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109권, 한민족어문학회, 191-224쪽.
- 박찬효, 「2020년대 현대로맨스 웹소설, '불륜 복수물'의 스토리텔링 양상 - <멜팅 슬로우>, <완벽한 결혼의 정석> 그리고 <내 남편과 결혼해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3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4, 283-318쪽.
- 서은영, 「로맨스판타지 웹툰의 부상과 재현 : #서로판, #영애물, #집착남물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연구』 제16권 3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20, 93-113쪽.
- 서재인, 「한국 웹소설에 나타난 시스템 모티프 분석」, 『대중서사연구』 제31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5, 399-431쪽.
-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책방의물'의 특성 연구—로맨스판타지 장르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6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0, 87-120쪽.
- _____,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0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279-307쪽.
- 엄채민, 「가이드버스(Guidaverse)의 장르적 전형과 신체적 예측 구조 연구—BL 웹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25권 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26, 121-146쪽.
- _____, 「한국 웹소설에 나타난 자기 재서사화 과정과 자기 구원 욕망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6.
- 유인혁, 「한국 웹소설 판타지의 형식적 갱신과 사회적 성찰—책방의물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6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0, 77-102쪽.
- 윤혜영, 「서사 모티프의 분류 체계 연구—분신 모티프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0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4, 273-297쪽.
- 음성원·장웅조, 「웹소설에서의 회귀·환생 모티프 활용 연구 - Vogler의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 『문화콘텐츠연구』 제25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22, 39-72쪽.
- 이선영, 「웹소설 '아이돌물'의 스토리텔링 연구 - 웹소설 『데뷔 못 하면 죽는 병 걸림』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6.
- 이수민, 「한국 고수위 웹소설의 서사 모티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6.
- 정은혜, 「한국 웹소설의 아이돌 모티프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57호, 글로벌문

화콘텐츠학회, 2023, 247-266쪽.

한혜원·정은혜, 「한국 웹 기반 여성소설에 나타나는 서사적 특성 연구」, 『한국문예창작』 제14권 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5, 81-105쪽.

미조구치 아키코, 『BL진화론』, 김효진 역, 길찾기, 2018.

웨인 케스텐바움, 『굴욕』, 김정아 역, 문학과지성사, 2026.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역, 열린책들, 2020.

H.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 우찬제 역, 문학과지성사, 2010.

3. 기타자료

〈RIDI(리디)〉, <https://ridibooks.com/>. (접속일: 2026.5.6.)

〈RIDI(리디)〉 공식 X, https://x.com/RIDI_twt/status/814642597318623232?s=20. (접속일: 2026.5.6.)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Structure and Melancholia of the 'Regretful Top' Subgenre in Korean BL Web Novels

Eom, Chae-Min(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Regretful Top' (Huhoe-gong) subgenre in Korean BL web novels, focusing on the narrative of loss experienced by the Top character and the resulting affect of melancholia. Within this context, the 'Regretful Top' refers to a character type that disregards the affection of the Bottom for various reasons, only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ir presence and love too late. In these narratives, the Bottom eventually abandons their feelings and leaves upon realizing that their affection has been ignored. The regret experienced by the Top at this juncture leads to melancholia, offering the audience catharsis as they witness the Top, who previously held emotional superiority, fall into a state of inferiority through desperate regret.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is narrative through *Destiny* by Gwendolyn, *Sandcastle* by Mosquemule, and *Divorce Contract* by Bomnarui-bokgiri, explaining the reversal of emotional hierarchy based on Sigmund Freud's theory of melancholi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erves as a concrete case study for BL web novel research—a field that remains relatively underdeveloped compared to other genres—while segmenting web novel studies by concretely analyzing one of the vast subgenres of BL web novels to demonstrate and academically define its unique narrative grammar. Ultimately, this work captures the dynamism of contemporary popular narratives while broadening the academic discourse on Korean BL web novels.

(Keywords: BL Web Novel, Regretful Top(Huhoe-gong), Narrative Structure, Motif, Loss, Melancholia, Catharsis)

논문투고일 : 2026년 5월 9일
심사완료일 : 2026년 6월 11일
수정완료일 : 2026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6년 6월 15일